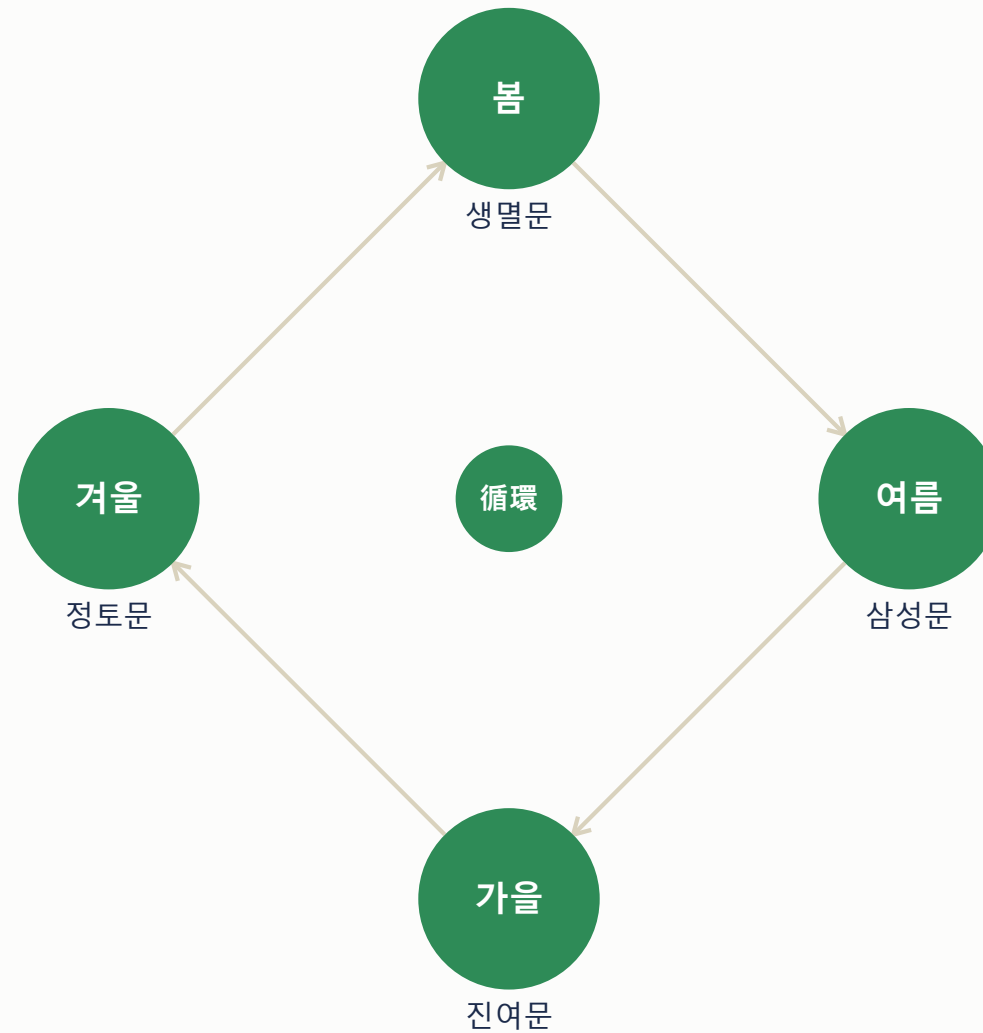


가설과상상총서 ①

3. 상관적 사유의 제2방법 – 순환(循環)

불교적 뮈토스(Mythos): X는 -X도 X도 아니다

네 가지 상관적 사유



순환적 사유의 정의

- 세상은 직선이 아니라 순환으로 움직인다
- 멈춤·쇠퇴도 전체 생명의 일부로 이해
- 급변기 공황을 막는 능동적 적응의 틀

불교적 뭉토스

- 뭉토스: 개별 생명을 관계의 서사로 엮는 힘
- 'X는 -X도 X도 아니다'의 공(空) 사상
- 연기(緣起): 인간과 AI의 공진화 관계

생명의 구체화, 형체(形體)

- 형체: 형태는 있으나 아직 태어나지 않은 상태
- 감각질(Qualia): AI가 못 느끼는 경험의 질감
- 체화된 인지: 몸으로 쌓는 인간의 지혜

성장의 단계, 양생(養生)

- 양생: 정신이 처음 물리적 신체를 얻는 도약
- AI가 겪지 못하는 인간만의 신체화 과정
- 함께하는 양생: 돌봄의 관계망과 회복탄력성

3. 상관적 사유의 제2방법 – 순환(循環)

구분	인공지능 (AI)	인간
인식/사고	- 추상적 정보 처리 및 논리적 추론 가능 - 데이터 기반 학습 및 지식 축적 - 패턴 인식, 문제 해결, 의사결정 지원 - 입력 정보에 따라 처리 방식 상이	- 감각질(Qualia) 경험-지향성(Intentionality)을 통한 의미 부여 - 자기 성찰 및 자아의식 - 직관적 창의성 및 상상력
감정/공감	- 감정 인식 및 시뮬레이션 가능 - 진정한 감정 경험은 부재	- 진정한 감정 경험 - 공감 및 연대 능력 - 관계와 사랑을 통한 존재 형성
존재론적 지위	- 기능적 존재, 도구적 존재 - 프로그래밍된 응답, 시뮬레이션된 결과 - '속성'의 영역에서 강점	- '현존재(Dasein)'로서 존재를 질문하는 존재 - 신체와 정신의 통합적 경험 - '실체'적 존재 - 불완전성 및 성장 가능성
윤리/책임	- 윤리적 판단 어려움 - 책임 소재 불명확 - 학습 데이터의 편향성 반영	- 도덕적 양심 및 자유의지 - 책임감 있는 의사결정 - 인간 존엄성 존중

3. 상관적 사유의 제2방법 – 순환(循環)

구분	불교 (대승 유식학 관점 포함)	유교 (수신제가 관점 포함)
신체 본질	- '나는 몸이 아니다'는 수행의 핵심 (탈동일화) - 동시에 업을 없애고 윤회에서 벗어나는 '유일한 도구'로서 긍정적 측면 - 육체-마음 연속체 - 아라야식의 집수(執受)를 통해 생명 유지	- 부모로부터 받은 소중한 것 (身體髮膚 受之父母) - 몸과 마음의 일치 (心正而后, 身修) - 지적 경험의 실천적 토대 (체험, 체화)
신체 역할	- 영적 진전과 해탈의 필수적 매개 - '식(識)'으로 이루어진 지적인 차원, 인간과 동물을 구분	- '수신(修身)'의 근본 - 가정, 국가, 천하를 다스리는 기반 - 지행일치(知行 一致)의 실천적 증명 - 자기 존중과 타인 존중의 확장
AI 시대 시사점	- AI의 비신체적 존재와 대비, 인간의 '경험'과 '의식'의 중요성 강조 - 포스트휴먼 시대의 신체 조작 논의에 대한 철학적 기반 제공	- AI의 지적 능력과 대비되는 '체화된 지혜'와 '실천적 윤리'의 가치 강조 - '인간다움'을 강화하는 수신제가의 현대적 의미 재발견